

# 지나간 삶의 시간들을 제본하다

가치 있는 책을 아름답게, 오랫동안 보존코자 시작된 예술제본. <출판저널>은 텍스트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책의 미적 가치와 보존에 대한 관심 확대를 반영하고 이를 권하는 의미에서 예술제본가 백순덕, 씨로부터 다양한 예술제본서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려 한다

# pour le deplace

백순덕 | 렉토베르소 (www.rectoverso.co.kr) 대표

내가 파리에서 예술제본을 공부하는 일이 주변 사람들이나 한국 유학생들에게 몹시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로 여겨질 때였다. 이런 저런 인연으로 안면을 트게 된 이중수 씨로부터 두 개의 파일 묶음을 받게 되었다. 그동안의 프랑스 생활을 기록한 글 모음이라고, 미래의 예술제본가에게 미리 예약 주문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다. 예술제본 공부를 시작한 이후 몇 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호의인지라 한 번 읽어보겠다며 받아들였다. 손으로 직접 쓴 필사본은 그가 처음 샤를드골 Charles de Gaulle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의 단상을 기록하고 있다.

유럽을 여행하며, 혹은 술을 마시며, 혹은 명상에 잠겨 이국에서의 마음의 혼돈과 흐름을 일상의 흔적들-지하철 티켓, 사고 싶은 자동차의 바코드, 우표 등-과 꽤 괜찮은 그림 솜씨로 표현한 필사본이었다.

“《집으로 오는 차안에서-Jacques Derrida》의 해체이론을 읽은 것이지만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내 모든 기억은 재조립되고 있었다.”

그의 머릿속에서 재조립되고 있던 기억의 내용이 무언지 모르지만 이 대목에서 나는 그의 필사본을 재조립하기로 마음먹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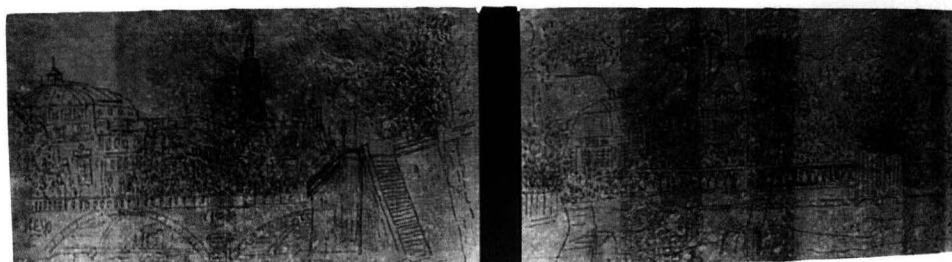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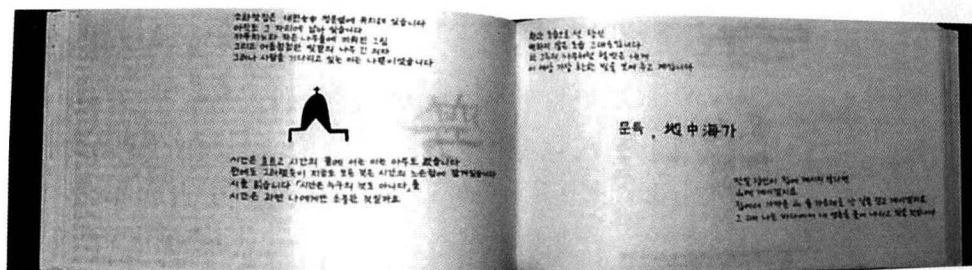
사실 작가분이 내게 책을 맡겼을 때 근사한 제본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. 나 역시도 언젠가 이 기록들을 책으로 엮게 되리라 예상할 수 없었으니까.

그저 되돌려 줄 기회가 없어 어정쩡하게 가지고 있던 글 모음이 7년 만에 새로 태어나고 있었다. 낱장의 페이지를 대수화시키고(두 장씩 붙이고), 자르고, 꿰매고, 가죽으로 책등을 씌우고, 표지에 색상들을 입히고 그림을 그리고...

그 순간 느꼈던 신비함이란! 이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를 새삼 깨달았다. 나는 타인이 기억하는 과거의 시간들을 책으로 엮으며 그를 배우고, 더불어 지나간 나의 시간들과 그의 시간들 속에 펼쳐진 삶의 궤적들을 함께 엮고 있었다. 그 덕에 나는 내가 평생을 두고 선택한 예술제본가라는 직업의 가장 큰 가치를 발견했고,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다. ■■

193X103

# ment continuel



제본명 따로 따로 제본

책등 염소가죽, 표지는 구긴 craft지에 painting + 사포질 + 한지에 그림

제목 끊임없는 자리 옮김을 위하여 Pour le deplacement continuel 193 X 103